

[ 종합 ]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해양 과학·관광허브 조성을”

오늘 박람회 성공 위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효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 과학 및 관광 허브(Blue Eco polis)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문화사회과학대 주최로 26일 여수컨벤션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병인 전남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여수엑스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박람회장 주무대인 여수신항 일대의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여타 지역이나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해양 연구 및 휴양·관광·레저 분야 개발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그 근거로 ▲해양테크노파크 및 업무단지는 대전(테크

노파크)과 부산(해양관련산업)이 선점한 점 ▲전시·컨벤션센터는 공급과잉인데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전남지역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해양 과학 및 관광 허브 조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선 남해수산연구소와 해조류연구소·해양벤처연구소 등 국내 기관들로 여수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한 뒤, 전 세계 30여개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소·대학·다국적기업을 망라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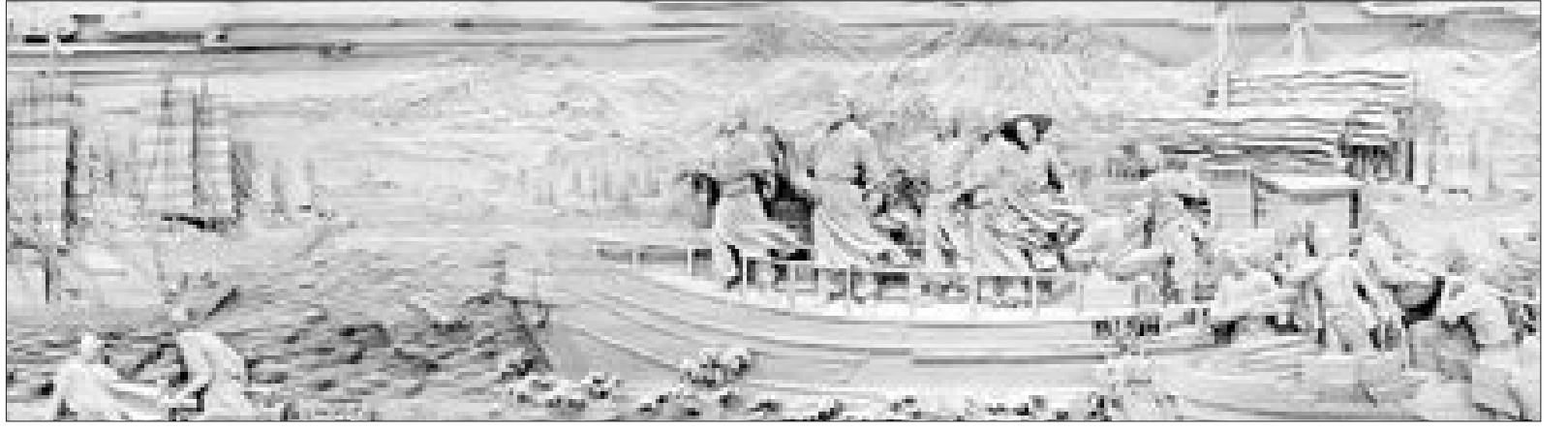
이렇게 구축된 해양연구개발센터는 해조류 신바이오 대체에너지 개발과 박람회 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등 지속적 이용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박람회 해역 생태환경 감시를 비롯한 생태계 보전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호텔체인과 국제적인 의식업체 등의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국제항로 개설, 도서지역과의 접근성 제고,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의 관광역 유치에 필수적인 국제항로는 시모노세키~여수, 여수~나가사키 등 실현 가능한 노선부터 구축하고 이어 목포·상해·오사카·동경 등으로의 연결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박병인 교수는 “역대 박람회 성공 여부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박람회 개최가 개발 계획이 지역 개발 계획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보고 해양 개척 담은 3억짜리 목조벽화

완도 장보고기념관에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사를 새긴 3억원짜리 대형 목조벽화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벽화는 지난 2월 장보고 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중국 공예미술 대사 육광정(陸光正)씨가 1년여 작업 끝에 완성한 것으로 가로 8m×세로 2.2m×두께 0.2m 규모다. 연인원 3천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완도 제공>

IMF “내년 한국 성장률 2%”

OECD도 2.7%로 하향... 국제 금융위기 여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4.1%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은 국제 금융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수출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24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에서 1.5%포인트 크게 낮아진 2.0%로 전망

했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은 국제 금융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수출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5%포인트 내려간 2.0%였으며, 올해 전망치는 0.4%포인트 떨어진 3.7%로 조정됐다. 싱가포르의 성장률은 내년엔 1.4%포인트 하향 조정된 2.0%, 올해는 0.9% 떨어진 2.7%로 각각 전망됐다.

OECD도 25일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7%로 제시했다. 이는 OECD가 6월에 제시한 5.0%에 비해 2.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24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2.0%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와 2010년 경제성장률을 4.2%로 각각 예상했다. OECD는 성장률 하향조정 요인으로 세계 금융 위기와 이진 상품 가격 급등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균발위 “5+2 광역경제권 변경 어렵다”

광주시·전남도와 갈등 심화 될 듯

박경국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협력 국장은 25일 호남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재편론과 관련, “현재의 구도를 새로 짜게 되면 혼란

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에 한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호남권 소의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5+2 경제권’ 재편

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이날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광주·전남혁신협의회,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호남지역의 우려를 건의받은 뒤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호남고속철 등 선도 프로젝트에 호남고속철 등 선도사업이 많고, 선정 내용이 기대에 못미치지만 내년 상반기 광역권 사업과 신활력사업 등에 지역현안 사업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남권 선도프로젝트에 서남해안 관광·레저지도 조성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서남해안 관광·레저 사업이 선도사업에서 누락된 것은 아쉽지만, 국가가 관심을 갖고 시책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U턴’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도 공공사업 ‘계약 전 원가심사’ 했더니

3개월만에 200억원 절감

전남도가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 원가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3개월여 만에 무려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으며,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비의 오류를 적발해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3개월여 동안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과 2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 136건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이전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비 2천375억 원의 8.4%인 200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대상 기관별로는 전남도 발주사업이 26건 7억 원, 일선 시·군 107건 192억 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3건 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A지자체의 경우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사의 강관 구멍 뚫기 공정을 송곳 인력 뚫기에서 마그네틱 전기 드릴 뚫기 공법으로 변경해 8억여 원(12.1%)을 절감했으며 B지자체는 간판문화개선사업의 태양광 시스템 LED전구 소모 수량이 이종 또는 일부 작음 적용된 것을 적발해 3억여 원(35.6%)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 중 지방비 절감액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절감액은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추진

농림부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2010년부터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다시 말해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방의원 의정비 동결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성명

광주와 전남 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완료되는 2009년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동결’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준안은 의정비 산정 기준이 되는 월정 수당의 과다한 책정으로 의정비를 불필요하게 증액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 현실에 결코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artoon titled '빛의만평' by Kim Jundoo. It depicts a man in a suit talking to a man in a traditional Korean hat. The man in the hat says, '관차림 비용 줄어줄게요' (I'll reduce the limousine costs). The man in the suit replies, '없어진줄 알았더니 있긴 있구나' (I thought it was gone, but it's still here). The cartoon is signed '- 김중두'.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Phone: (062)227-9600, Fax: (062)227-9500.

산행 안내 18면 게재. Mountain hiking guide information.

자본감소 공고. 2008년 11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45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배당금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45,000주를 15,000주로 감소한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제 일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것을 이에 공고함. 2008년 11월 26일 주식회사 한빛에너지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93 대표이사 이일 권

글씨공. 취입·논술고사 대비 맞춤학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약필·명필 1대1개인지도 (글씨교정기·교정노트). 바리스타 교육 T.062)269-0112, 010-2642-5559

분할 공고. 농업회사법인장흥물산 주식회사는 2008년 10월 10일 그 재산인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농업회사법인장흥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결의로 분할계약을 승인하였는바 이에 농업회사법인장흥물산 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장흥물산 주식회사의 재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일일부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농업회사법인장흥물산주식회사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88 대표이사 손수 익

정정 공고. 본 회사의 2008년 11월 21일자 주식회사 대영 자본감소 공고문 「총 좌수증 90,000주수 40,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음은」 총 90,000주로 40,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정정공고 함. 2008년 11월 26일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08년 1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10,000,000,000원을 2,00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2주를 발행하여 같은 액면주식 1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 41,000주를 20,500주로 감소한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 일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8년 11월 26일 주식회사 청우조정 대구수정구 매호동 1342-9 대표이사 구성 순

합병 공고. 주식회사 동한(이하"갑")에서는 2008년 11월 25일 주식회사 대영전력(이하"을")에서는 동년 동월25일 각 주주총회의결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제일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8년 11월 26일 "갑" 주식회사 동한 전북 정읍시 백면 송부리 454-1 대표이사 윤성 남 "을" 주식회사 대영전력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6-9 대표이사 윤영 민

수완지구 분 월드 메디컬 센터 양 지하1층, 지상5층.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일일교통량 최다 승강장 옆, 병·의원 임점 최적위치, 수완지구 최고위치,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소아과, 내과,이비인후과 환영, 2009년 3월 준공.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062) 952-1033, 010-7723-1033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용나무 레스토랑 추천업종 :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치킨호프전문점 최적합 매매가 : 5억7천만원(용2억7천만포함), 현금매수액3억. 상무지구 매물구함 건물·토지·상가 임대·점포매매

완토 명사십리 땅 급매. 신지면 신리 420-1 田 (740평) 평당 11만원, 신지면 신리 448-1 田 (500 .1,000평) 평당 15만원, 신지면 대곡리 1946-8 田 (350평) 평당 39만원. 바닷가 요지, 관리지역, 도로접 펜션부지 7월 말 관공지 승인, 주인직매 011-765-9388